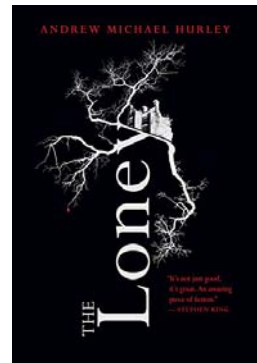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LONEY
가제 : 로니
저자 : Andrew Michael Hurley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6년 5월 1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문학 소설



“그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놀랍도록 훌륭한 소설” — 스티븐 킹
“대프니 뒤 모리에, 찰스 마투린, 휴 월폴 같은 고딕 소설 대가들에 비견될 만한 작품” — 가디언

**<28일 후>, <네버 렛 미 고>, <엑스 마키나> 등을 제작한 DNA 필름에 영화화 판권이 계약되고
코스타 데뷔소설 수상후보에 오른 데뷔소설**

사람들은 그곳을 늘 ‘로니’라고 불렀다. 그 곳에 다른 이름이 있었을까? 열 다섯 살 주인공 소년 톤토와, 말을 하지 못하고 정신 장애가 있는 형 해니는 늘 부활절 휴가 때마다 성지 순례처럼 신부님, 부모님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 어머니 에스더에게는 단 두 가지 소망밖에 없었다. 바로 이곳에서 영적인 힘으로 해니의 병이 치유되는 것, 그리고 톤토가 카톨릭 사제가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소망이 어찌 됐든 일행들 중 가장 어린 두 사람 톤토와 해니는 이 지루한 여행에서 ‘로니’를 거대한 놀이터처럼 생각하며 재밌는 일이 없나 찾아 다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동네를 찾아오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 이 순례의 리더와도 같던 윌프레드 신부님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순례의 전통은 멈추게 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윌프레드 신부님의 사망 소식에 이어, 새로운 신부님이 이 성당에 다시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 성지 순례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 여행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에스더는 새 신부님이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 사람들도 예전보다도 더욱 불친절해졌음을 느낀다. 하지만 에스더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종교적 순례와 의미에 더욱 더 치중하게 되고 가족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점점 더 긴장감을 높여가며 불안한 기운의 근원을 비추어가는 소설

월프레드 신부님의 친척들은 여전히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해니가 점점 어른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니는 동생에게만 의지하고 있었고, 자신을 치유해 주려는 어머니의 노력은 점점 의미가 없어져 가는 듯 했다. 새롭게 시작된 성지 순례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과 갑작스럽게 기이한 일을 겪고 죽게 된 월프레드 신부의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함께 엮이면서 공포와 긴장감이 더해져 간다. 과연 이들의 어린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장르를 특정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의 소설인 이 책은 신비로우면서도 불안한 느낌이 엄습하는 내용들과, 표현되지 않은 암시만으로 독자들에게 강렬한 느낌을 선사한다. 데뷔 소설답지 않게 공포 소설의 모던 클래식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평단과 독자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 현재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로마니아, 터키, 미국 등 12개국에 판권 계약되었고 영화 판권은 옥션을 통해 <28일 후>, <네버 렛 미 고>, <엑스 마키나> 등을 제작한 앤드류 맥도날드와 대니 보일의 'DNA 필름'과 계약되었다.

<저자 소개>

저자인 Andrew Michael Hurley는 현재 랜캐셔에 거주하며 영문학과 문예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단편집 두 권을 출간하기도 했던 그는 첫 장편 소설인 <The Loney> 를 통해 평단과 독자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

제목 : THE GREAT FORGETTING

가제 : 대망각 프로그램

저자 : James Renner

출판사: Sarah Crichton Books

발행일: 2015년 11월 1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소설



조용한 고향 마을로 돌아온 역사 교사, 사라진 옛 친구의 불가해한 행적, 수상한 음모론

시간 여행과 연쇄살인 사건이 결합된 스릴러 소설 《THE MAN FROM PRIMROSE LANE》으로 AP 통신으로부터 ‘도무지 믿기 힘들 만큼 훌륭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은 작가 제임스 레너가 이번에는 공상과학 소설과 음모론에 순수한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새로운 스릴러 소설을 완성했다. 신작 역시 전작에 뒤지지 않을 만큼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

이야기는 역사 교사인 잭 펠터가 어쩔 수 없이 고향 마을에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족들과의 갈등도 있고 한 때 열렬히 사랑했던 첫사랑이 제일 친한 친구와 눈이 맞아 사랑의 도피행각까지 벌인 일도 있었으니 잭에게 고향인 오하이오 주 전원 마을 프랭클린 밀스는 평생 모르는 곳처럼 잊고 살고 싶은 곳이었다. 그는 고향도, 파릇했던 젊은 날의 기억도 다 없었던 일처럼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일명 ‘캡틴’으로 불리는 아버지에게 알츠하이머가 찾아와 병세가 점차 심각해지자 여동생 진과 진의 딸 페이지 둘이서만 아버지를 돌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 되고, 결국 잭이 간병을 돕기로 한다. 클리블랜드에 애써 만들어놓은 새 삶을 마지못해 정리하고, 잭은 그렇게 마지못해 고향으로 돌아간다. 베트남전에 공군 비행사로 참전한 잭의 아버지는 머릿속이 전쟁이 한창이던 먼 과거의 시간들 사이를 헤매며 현실과 점점 멀어져만 간다. 그런데 프랭클린 밀스에 도착하고 보니, 잭이 걱정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기다리고 있었다.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첫사랑을 만난 것이다.

잭이 마음 깊이 사랑했던 샘 브룩스는 같은 마을에 살던 잭의 베스트 프렌드, 토니 샌더스와 사랑에 빠졌고, 둘은 어딘가로 도망을 가면서까지 결혼에 골인했다. 의사인 토니와 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잭이 고향에 돌아와보니 3년 전에 토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사방팔방 홀로 남편을 찾느라 애를 먹는 샘을 보면서, 잭은 비록 두 사람에게 한 때는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동안 연을 끊고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감정들이 남아 있었음을 깨닫고, 소중한 친구의 생사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하여 잭은 샘을 도와 토니를 찾아 나선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대망각' 프로그램의 음모

토니가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던 헤이븐 병원을 찾아가 실종 전 행적을 뒤지던 책은 토니가 마지막으로 진료한 편집증 환자 콜 몬로의 존재를 찾아낸다. 이어 침대 환자인 콜을 진료한지 2주 만에 토니는 평범한 수돗물만 보면 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것으로 밝혀진다. 그러다 콜의 치료가 시작된 지 26일 만에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책은 단서를 찾기 위해 콜을 찾아내고, 그 때부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어린 소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수돗물에 섞인 불소의 기능을 언급하며 “물은 무조건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질 않나, '대망각' 프로그램에 따라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역사가 존재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다. 그런데 책은 콜의 설명에 왠지 수궁이 가고,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한다. 책은 토니 역시 콜의 말에 신빙성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고, 콜의 설명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진실은 모두 이전 세대가 믿은 것이 그대로 전해진 것일 뿐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콜의 주장처럼,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정말로 연합군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건 아닐까? 실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악의 힘이 소수를 제외한 모두에게 집단 최면을 걸어 실제 일어난 과거를 다 잊고 자신들이 만든 가짜 현실을 살도록 만든 건 아닐까? 콜은 편집증 환자가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을 아는 유일한 인물은 아닐까? 책은 '대망각' 프로그램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거대한 힘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모여드는 신비한 섬, 유를 향해 떠난다. 어쩌면 토니도 그 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참신한 소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제시되는 역사가 흡입력을 더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임스 레너(James Renner)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2012년 소설 《THE MAN FROM PRIMROSE LANE》을 발표했다. 2016년에는 비소설 《True Crime Addict》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목 : SLEEP TIGHT
가제 : 잘 자요
저자 : Rachel Abbott
출판사: Black Dot Publishing
발행일: 2014년 2월 24일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소설



통 더글러스 경감이 파헤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100만권이 넘게 판매된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2011년, 예수두 살의 나이로 처음 소설을 완성했지만 에이전트로부터 출간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한 작가가 자비로 출판을 결심하고, 이어지는 두 편의 이야기까지 모두 세상에 선보였다. 《Only the Innocent》, 《The Back Road》에 이어 시리즈 세 번째로 완성된 이 소설까지, 빛을 보지 못할 뻔 했던 3부작 스릴러 소설은 모두 출간 직후 ‘아마존 킨들’ 스토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현재까지도 100위권에 꾸준히 머무르고 있으며, 첫 두 권만 100만 권 넘게 판매되며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편에 이어 통 더글러스 경감이 파헤치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이 3권에서 다시 한 번 긴장감 넘치게 펼쳐진다.

맨체스터의 어느 가정집에서 주부가 아이 세 명과 함께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 조사를 맡은 통 더글러스 경감은 실종자의 이름이 ‘올리비아’라는 기록을 보고 화들짝 놀란다. 한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토록 수많은 불운을 겪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만큼 올리비아라는 여성에게 딸린 갖가지 사건 기록은 그녀가 지독히도 불행한 삶을 살아왔음을 증명했다. 올리비아가 경찰에 처음으로 연락한 건 남편 댄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을 때였다. 뱃속에 댄의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홀연히 사라진 남편. 당시 경찰은 남자가 비겁하게 아내를 버리고 떠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올리비아는 집에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채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현장에 나간 더글러스 경감은 분명 이 집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났음을 직감한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이 사건 역시 겉으로 드러난 사인대로 정리가 됐다. 다시 몇 년이 흐르고, 올리비아는 다시 경찰에 연락해 남편과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첫 남편에게 버림받고 부모님까지 여윈 후, 실의에 빠진 올리비아에게 로버트라는 남자가 나타나 큰 의지가 되어주었고 둘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해 7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 올리비아는 홀로 낳은 딸에 이어 로버트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이 아이들과 두 번째 남편까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올리비아는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했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 모두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온다. 대체 올리비아의 주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라진 남편,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부모님, 세 아이들과 함께 출연히 사라진 여자, 감춰진 진실

집에 돌아온 올리비아의 두 번째 남편 로버트는 경찰에게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설명하고, 아이들이 엄마하고만 가까운 것 같아서 아이들만 데리고 1박 2일로 놀다 오기로 다 이야기하고 다녀온 것이라며 아내의 행동에 오히려 당황해 한다. 경찰은 허위신고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로 들어온 신고는 올리비아가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올리비아와 아이들이 모조리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이 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더글러스 경감은 갖가지 수상쩍은 정황을 발견한다. 집안에는 분명 실종 당일 아침까지 올리비아가 머물렀던 흔적이 무수히 남아있고, 차고에 올리비아의 자동차도 그대로 있으며 지갑도 부엌에 놓인 핸드백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여자와 아이들만 속 사라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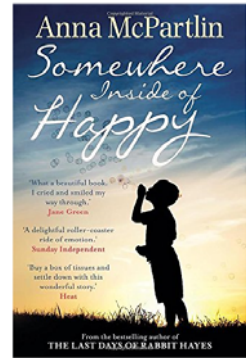
더욱 이상한 것은 집안에서 가족 사진이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가족 앨범에도, 휴대전화에도, 컴퓨터에도 가족들이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더글러스 경감은 남편 로버트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으며 아내와 아이들의 실종과 관련하여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올리비아의 집안 곳곳에서 그가 평소 아내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주시하면서 쥐락펴락해온 정황들이 발견된 것이다. 구석구석 숨겨진 카메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가 스트레스가 심하며 잘 잊어버린다고 주장해 온 사실들, 올리비아가 아이들 학교에 데리러 가는 걸 깜박 잊은 날이면 굳이 학교를 찾아가 아내의 실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과도하게 사과한 일들, 그는 분명 올리비아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

올리비아, 로버트, 더글러스 경감의 시선이 번갈아 가며 조금씩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은 충격적인 결말로 마무리된다. 시리즈의 주축이 되는 매력적인 인물, 더글러스 경감의 개인적인 삶과 사랑 이야기가 중간중간 가미되어 재미를 더한다. 시리즈 4편 《Strange Child》도 올해 5월 출간되어 아마존 베스트셀러 100위권에 들었다.

<저자 소개>

레이첼 애보트(Rachel Abbott)는 셰일라 로저스(Sheila Rodgers)의 필명으로, 자가 출판한 데뷔 소설 《Only the Innocent》가 미국과 영국 아마존 모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아마존으로부터 2015년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선정됐다.

제목 : SOMEWHERE INSIDE OF HAPPY
가제 : 행복의 내면 그 어딘가
저자 : Anna McPartlin
출판사: Black Swan
발행일: 2016년 4월 7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엄마, 폭력으로 얼룩진 아이의 죽음과 이후 완전히 바뀐 삶

2015년, 어느 대학의 강단에 올라선 메이지 빈 브레넌은 자리를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바로 옆에서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독여주는 남편, 그 옆에 기대 앉아 응원해주는 딸 발레리를 보면서 메이지는 갱년기 때문에 또 다시 얼굴에 슬그머니 올라오는 열기를 잠재우려고 애쓴다. 진행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둘러보니, 청중들 속에서 몇몇 눈에 띄는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시간이 되면 꼭 오겠다고 하던 데이브, 데이브의 오랜 친구 존, 나란히 앉은 린까지. 이 소란스러운 강당 안에서 오로지 손에 든 뜨개질에 집중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모습이 특히 메이지의 눈에 띄었다. ‘다 변했지만 그래도 똑같이 남아 있는 것들도 있구나.’ 메이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제레미 이야기: 사랑과 오해의 기억>이라는 자신의 저서 제목이 커다랗게 적힌 현수막이 내걸린 강단으로 천천히 올라섰다. 메이지가 아들 제레미를 생각하며 쓴 회고록이었다. 현수막 옆에는 열여섯 살이던 제레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다. 이제 메이지는 준비했던 이야기를 시작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몸 속에 자라고 있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20년 전, 폭력 속에서 죽어간 사랑하는 아들 제레미에 대해, 아이와 함께 살았던 짧은 시간이 바꾸어놓은 일들에 대해 메이지는 천천히 입을 연다.

이야기는 제레미가 열여섯 살이던 1992년의 새해 아침, 부엌에서 할머니와 춤을 추던 그 평온했던 날부터 시작됐다. 일흔여덟이던 메이지의 어머니, 브리디는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다. 제레미는 그런 할머니를 누구보다 잘 챙기고 보살피던 착한 아들이었다.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된 긴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해가 시작된 그 날, 당시 열두 살에 한창 사춘기를 맞아 빼딱하게 굴던 딸 발레리까지 네 가족은 그렇게 도란도란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 집시 행세에 폭 빠진 발레리는 너털너털한 웃을 방안 가득 걸쳐놓질 않나 입만 열면 상스러운 욕을 뱉으며 메이지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 학교에서도 하도 욕을 많이 해서 메이지가 교장 선생님께 호출될 정도였지만, 아무리 꾸중을 해도 발레리는 욕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무자비한 폭력 속에 살아온 세월, 그 속에서 나고 자란 아들, 한 순간의 실수와 비극적인 결과

제레미는 그런 발레리와는 정반대되는 아들이었다. 최소한 어른들 앞에선 욕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바른 아이였지만, 대신 제레미에겐 몇 가지 특이하고 예민한 버릇이 있었다. 문단속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대문이나 현관문은 물론이고, 난로 앞에 치는 철망을 메이지가 깜박 잊고 꼭 잠그지 않으면 제레미는 펄쩍 날뛰며 난리를 치곤 했다. 늘 점잖고 착한 아이지만 드나들면서 문을 잘 안 닫고 다니면 꼭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는 문 잠그라고 껌 고함을 질러버렸다. 이제 성인이 다 되어 가는 나이, 어엿한 남자가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제레미의 내면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꾸만 정신 없이 행동하던 할머니가 손자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꼼짝없이 벽 한구석에 내몰린 순간, 제레미의 눈에 서린 극심한 공포를 메이지는 보고 말았다. 아무 것도 아니고 원하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잠깐의 상황이 아이의 기억 속에 숨어 있던 고통의 흔적을 일깨운 것이 분명했다. 메이지를 끊임없이 두들겨 패던 아이들의 아버지, 집안에 끊이지 않았던 비명소리와 애원, 울음소리... 곳곳에 남아 있는 잔인한 폭력의 흔적들을 말이다. 발레리가 다섯 살 때, 메이지는 어린 딸 앞에서 무참히 주먹을 휘두른 남편 손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병원에서 3주간 입원을 한 적도 있었다. 결국 결혼 생활에 중지부를 찍고 아이들 아버지가 사라진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고통은 남은 가족 모두의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제레미가 열아홉 살이 된 1995년 1월 1일, 메이지가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을 그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 날 저지른 실수 하나, 그 일이 연쇄적인 사건들로 이어져 결국 메이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잃었다.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작가 특유의 따뜻한 글과 만나 미소와 눈물을 동시에 안겨주는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아들이 죽은 지 20년이 되는 날,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회고록으로 펴낸 한 엄마가 전하는 회상 속에서 상처를 딛고 다시 찾는 삶의 희망을 느낄 수 있다.

<저자 소개>

애나 맥파틀린(Anna McPartlin)은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과거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활동했다. 《The Last Days of Rabbit Hayes》 등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유머와 인간애를 잃지 않는 이야기들을 써 왔다.

NON-FICTION

제목 : THE MAXIMUM SECURITY BOOK CLUB

가제 : 철통 보안 교도소의 독서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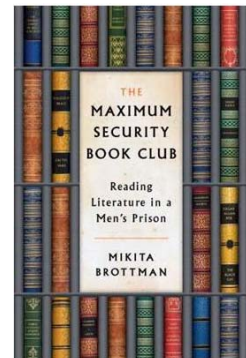
저자 : Mikita Brottman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6년 6월 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문학, 에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한 독서 클럽, 놀랍고도 신선한 문학의 힘
대학원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가 범죄자들, 그것도 경비가 가장 삼엄한 볼티모어 외곽의 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감자들을 학생으로 만나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시도했다. 독특한 사람들을 학생들로 맞아 가르친 특별한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저자가 배우고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안식 기간을 맞아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독서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교정 기관을 찾은 저자는 묵직하고 두툼한 철재 구조물들이 풍기는 차가운 분위기와 달리 교도소에 마련된 교실은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한다. 현관부터 복도까지 웬지 으스스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가득한 다른 구역들과는 판판이었다. 햇살이 비치는 창문도 하나 없지만 오히려 지하에 있는 공간처럼 느껴져 조용하고 평온한 곳. 시계도 없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는 곳. 학생들이 몰래 휴대전화를 보거나 문자라도 보낼 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교수 자신도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곳. 교도소 내에서도 오직 이 지정된 교실 내에서만 접촉이 허락된 재소자들과 교수는 이 공간에서 온전히 앞에 놓인 책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저자가 재소자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하기로 선택한 도서는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과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고양이』 등 삶과 고투를 벌이는 인간의 고립감과 갈등의 고통, 죄의 대가를 피하거나 둘러대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들이었다. 과거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모여 독서 클럽을 운영해온 저자는 이 특별한 학생들, 중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학을 통해 서서히 마음을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자는 독서 클럽에 참여한 수감자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대신 그냥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결점이 많고 어떨 때는 상대방을 다양한 이유로 놀라게 만들기도 하는 특이한 사람들로 묘사한다. 독서에 꼭 빠져 열광하던 스티븐, 온 몸이 문신으로 뒤덮인 데이데이, 항상 냉소적이고 꼭 필요한 말만 내뱉는

도널드, 걸핏하면 화를 내는 몇몇 학생들, 천하태평인 터키 출신의 재소자까지, 저자가 만난 학생들은 인생의 고통을 떠올리며 음울한 면을 보이기도 하고 순수한 기쁨을 느끼며 큰 웃음을 주기도 했다. 독서 토론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소자들은 지나온 삶과 가족의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고 재앙이 되어버린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마음 속에 떠오른 죄책감과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결코 순탄치 않은 교도소 생활, 거의 매일 사고가 끊이지 않는 피곤한 삶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독방에 갇혀서도, 의무적으로 부여된 공장 근무 시간에도, 병원에 누워 있거나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주변에 가득한 소음 속에서도 계속 책을 읽는 재소자들의 모습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따기 위해 마지못해 강의실 의자에 앉아 있는 대학교 학생들과 달리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열의에 찬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자는 이들의 인간적인 고통과 변화를 지켜본 감상을 솔직하게 전한다. 더불어 책 속에 등장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들의 예기치 못한 견해들도 가감 없이 전달한다. 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한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낯선 분석을 접할 수 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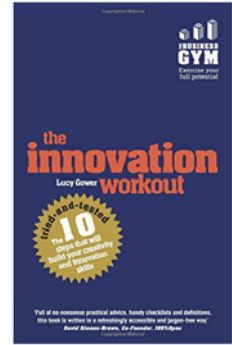
머리말

1. 어둠의 핵심
2. 필경사 바틀비
3. 빌어먹을 소년시대
4. 정키 (Junkie)
5. 뜰에서 (On the Yard)
6. 맥베스
7. 지킬 박사와 하이드
8. 검은고양이
9. 변신
10. 롤리타

<저자 소개>

미키타 브로트먼(Mikita Brottman)은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자, 저술가, 심리분석가,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미국 정신분석학회지>, <정신분석 리뷰> 등 전문 간행물에 글과 논문을 기고해 왔다. 『The Great Grisby』 등 일곱 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현재도 교도소에서 매주 재소자 대상 독서 클럽을 진행하고 있다.

제목 : INNOVATION WORKOUT
가제 : 혁신 훈련
저자 : Lucy Gower
출판사: Pearson Education Limited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영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인 혁신, 창의력과 혁신적 기술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10가지 검증된 단계

수년 동안 산업계에 등장한 일종의 유행어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언급된 단어는 아마도 ‘혁신’일 것이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정책이나 대출 상품, 심지어 식품에 새로운 맛을 가미한 경우에도 ‘혁신’이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실제보다 더 멋지고 흥미로운 대상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혁신이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무엇이 됐건’ 특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세운 목표에 회사가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혁신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 직원들과 소비자 모두 지금보다 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 회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이 모두 혁신이다.

수많은 회사들이 이미 채택한 아이디어라도 자신의 회사에서는 새롭고 낯선 도전이라면, 이 역시 혁신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와 같은 혁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단계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우선 다양한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기막힌 기회를 잡아내는 능력, 문제가 발생해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목표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목표로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필수적이다. 저자는 혁신으로 향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각자의 혁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체 평가용 질문지를 마련하여 자신의 회사가 특히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더욱 개선해야 할 측면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업종이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업무 방식은 물론이고 개인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자 소비자와 의사 소통하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고 회사 내에 있는 동료들, 회사 바깥의 친구들, 가족들과 의사 소통하는 방식이 모두 바뀌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혁신해야 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업체만이 아니다. 이제는 개개인의 생존에도 혁신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확고히 자리잡아서,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업무나 기술, 생활양식도 불과 10년 이내에 모조리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혁신의 기술을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남들보다 훨

싹 방대한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의미다.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법,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더욱 발전시킬만한 것을 선별하는 법,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법,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자신만의 탁월한 생각을 전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법,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에서 운용되는 기술로 만드는 법 등, 독자들은 혁신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요건을 더 튼튼하게 갖추는 상세한 방법들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사전 평가/사후 평가 질문지

1부: 혁신 기술을 향상시키는 10 단계

1단계. 목적을 정확히 기술하라

2단계. 소비자를 파악하고 이해하라

3단계. 현재의 시장 상황을 알고 내일의 시장 동향을 예측하라.

4단계. 창의력을 키워라.

5단계. 창의적인 슈퍼스타가 되어 갖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

(이하 생략)

2부. 구체적인 10가지 혁신 기술

1. 대규모 조직의 혁신 방안

2. 여러분 자신의 혁신

3.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혁신을 추진할 때

4. 팀과 더불어 혁신하는 법

5. 고객과 더불어 혁신하는 법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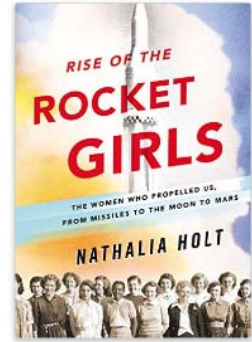
3부. 흔히 발생하는 혁신의 장애물 10가지

4부. 실행에 옮겨라 - 멘토가 되어줄 유익한 틀

<저자 소개>

루시 고어(Lucy Gower)는 혁신 중에서도 인적 자원의 혁신을 돕는 트레이너이자 코치로 활동 중이다. 디자인 산업과 기금모금 사업을 추진하다 영국 최대 자선단체 NSPCC에서 처음으로 혁신 팀을 이끌었다. 이후 국제 사면위원회, 그린피스 등 전 세계 50개 이상의 기관, 단체의 혁신을 도왔다.

제목 : RISE OF THE ROCKET GIRLS
가제 : 로켓 걸의 등장
저자 : Nathalia Holt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6년 4월 12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과학/역사



NASA 제트추진연구소에서 미사일, 로켓, 위성 개발과 우주탐사를 이끈 위대한 여성 과학자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는 ‘제트추진연구소(JPL)’라는 부설 연구소가 있다. 1930년대에 설립되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운영을 맡고 있는 이 연구소는 무인 탐사우주선을 연구, 개발하고 NASA가 사용하는 우주선을 제작, 보수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2차 대전 시기에는 나치 독일의 로켓을 분석하여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후 수립된 우주 탐사 계획의 기술적인 부분을 도맡아서 진행해왔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의 핵심 기술이 탄생하고 화성 탐사선, 인공위성 개발을 담당한 곳도 이 연구소가 이룬 업적이다. 저자는 첫 딸아이를 임신하고 멋진 이름을 지어 주려고 고민하다 ‘엘레노어 프란시스’가 후보로 거론되고, 동명이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검색을 해보던 저자는 뜻밖의 검색 결과와 마주한다. 1932년생인 엘레노어 프란시스라는 여성이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에 근무한 과학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남성만 가득할 것 같은 연구소에 정말 여성 학자가 있었을까, 하는 호기심이 줄곧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저자는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결심한다. 영화 <아마게돈>에 등장하는 과학자들처럼 소행성의 경로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ASA에서 근무하는 동안 800개가 넘는 소행성과 혜성을 발견했다는 엘레노어 프란시스. 흑백 사진에 선명하게 남은 금발의 엔지니어였다. 1950년대에도 NASA에 여성 과학자가 근무했을까? 라는 뜻밖의 궁금증으로 시작된 저자의 조사는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위대한 인물들과 업적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내용이 이 책에 정리되어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당시 설립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신생 기관이던 제트추진연구소는 속도와 탄도를 능숙하게 계산할 줄 아는 똑똑한 수학 전문가가 필요했다. 연구소가 책임자로 택하고 채용한 인재들은, 놀랍게도 대학을 갓 졸업한 남성들이 아닌 아주 젊고 영민한 여성들이었다. ‘인간 컴퓨터’로 불린 이 여성들은 종이와 연필, 특출난 수학 실력 딱 세 가지만으로 중요한 연구 개발의 핵심이 된 계산식을 척척 풀어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독일 출신의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과 같은 남성들이 로켓 추진체가 폭탄을 제대로 싣고 갈 수 있는지, 혹은 위성이 궤도에 제대로 당도하는지 지켜보는 동안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낸 것은 모두 이 여성 수학자들이었다. 이들이 완료한 계산은 군사 로켓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미국 최초의 위성 개발과 달 탐사로 이어지고 태양계 탐사를 가능케 했다.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이 엄청난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저자는 성 차별과 고난도 과학의 드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미국이 우주에 진출할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을 만들어낸 이 여성 과학자들의 발자취를 이 책에서 상세히 정리했다. 현재까지도 선임 엔지니어로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연구자를 비롯해 연구소는 떠났지만 아직 생존해 있는 당시의 수학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집중적인 자료 조사를 거쳐 탄생한 이 역사의 기록 속에는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여성들의 역할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목차>

발사일

1부. 1940년대

1장. 위로, 더 멀리 위로

2장. 서부로

2부. 1950년대

3장. 로켓의 등장

4장. 유도미사일 아가씨

5장. 방해물

6장. 90일, 90분

7장. 달빛

3부. 1960년대

8장. 아날로그를 지배하는 자

9장. 행성이 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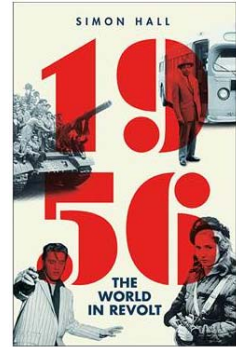
10장. 우주 공간 최후의 여왕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나탈리아 홀트(Nathalia Holt)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부설 의학연구소인 라곤 연구소(Ragon Institute)와 MIT,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자로 근무했다.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emd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저서 『Cured: The People Who Defeated HIV』를 발표했다.

제목 : 1956
가제 : 1956년, 저항의 해
저자 : Simon Hall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6년 1월 5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역사



오랜 규칙과 부당한 사회 질서에 저항하며 자유를 찾아 전 세계에서 불꽃이 일었던 1956년의 기록

1956년 1월 1일자 <뉴욕타임스>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이번 새해는 미래가 용기와 결의, 민주주의자의 힘에 달려 있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꼭 맞는 시점인 것 같다.”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흘러 이 해가 마감되던 12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시점이다. 지금 우리는 저물어가는 옛 시대와 떠오르는 새로운 시대, 이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있다.” 1956년은 20세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해였다. 전 세계적으로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와 도심 광장으로 달려 나와 자유를 호소하던 해였고, 권력과 자원을 거머쥔 사람들은 전례 없던 저항과 마주해야 했던 해였다. 손에 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세력과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힘을 합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부딪힌 이 1956년의 사건들은 세상 전체를 바꿔놓았다. 저자는 20세기의 가장 상징적인 해라 할 수 있는 1956년의 사건들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생동감 넘치게 전한다.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다 넓은 견지에서 바라보면서 이전 시대와 이후 1960년대로 그 영향력이 이어지는 과정까지 포괄한 이 이야기 속에는 역사를 바꾸기 위해 여기 저기에서 발 벗고 나선 인류의 수많은 도전이 담겨 있다.

이집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유럽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로가 막힐까 두려워진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공격한 ‘수에즈 위기’, 미국과 남아프리카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기 위해 벌어진 다통과 총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유럽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민 도전장,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일어난 봉기는 1956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변화의 움직임 중 일부일 뿐이다. 저자는 세밀한 조사와 연구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쿠바와 부다페스트에서 벌어진 이데올로기 전쟁부터 미국 시민권 운동의 뜨거운 열기, 알제리의 유혈 사태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흡입력 있게 전한다. 모두 기존의 역사가들을 통해 다루어진 사건들이지만, 1956년이라는 공통 시점을 중심에 두고 우아한 문장과 정확한 판단력이 돋보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들을 절묘하게 엮어낸 저자의 남다른 통찰력을 접할 수 있다.

1950년대는 역사적으로 생기 없고 칙칙한 시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는 전후 엄

격한 근검절약 정책에 따라 내핍 상태가 이어졌고, 순응과 모두의 의견을 일치시키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미국에서는 한 마디로 갑갑하고 답답한 문화가 자리한 무기력하고 자족적인 시대였다. 그러나 1968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전 국가적인 파업 사태와 시카고에서 반전 운동가들과 진압 경찰 사이에 벌어진 폭력적인 충돌 사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시민들과 소비에트 군대가 보낸 탱크가 충돌한 사태는 모두 1956년에 벌어진 역사적 변화들이 씨앗이 되었다. 저자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짚어보고,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이 한 해의 움직임을 밀도 있게 분석하여 전한다. 그저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모아놓는 것이 아닌, 세상을 재편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왜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미래를 위해 직접 싸우기로 마음 먹었는지, 그것이 근대 역사와 자유의 획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목차>

I. 겨울: 오랜 질서에 균열이 생기다

1. 몽고메리
2. 몰레(Mollet)의 투항
3. 기밀 연설
4. 대규모 저항 세력

II. 봄: 자유를 향한 동경

5. 기나긴 산책
6. 제국으로부터의 후퇴
7. 팔레스트로의 대학살
8. 전 세계 대규모 투쟁의 일부

III. 여름: 반란의 정신

9. 빵과 자유
10. 페티피의 사람들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사이먼 홀(Simon Hall)은 셰필드 대학교에서 미국사를 공부하고 캠브리지에서 박사를 취득한 후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현재는 리즈 대학교에서 미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Peace and Freedom: The Civil Rights and Antiwar Movements in the 1960s』, 『American Patriotism』, 『American Protest: Social Movements Since the Sixties』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MYSTERY TRAIN

가제 : 미스터리 트레인: 록큰롤과 미국의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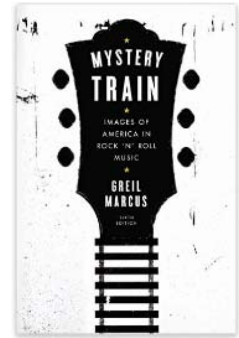
저자 : Greil Marcus

출판사: Plume

발행일: 2015년 4월 28일(제 6판)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예술·문화



“미국 문화와 록큰롤이라는 미국의 음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책” —브루스 스프링스틴

“팝 음악에 대해 쓰여진 책들 중 가장 훌륭한 책” — 뉴욕타임즈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가 여섯 명을 통해 살펴본 로큰롤의 발전과 미국 대중문화의 변천사

1975년에 20대이던 저자가 쓴 이 책의 제 1판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 로큰롤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음악 팬들과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 <타임>지에서 비소설 스테디셀러 100권 중 26 번째 책으로 선정된 이 책에서 저자는 여섯 명의 음악가를 집중 조명하며 로큰롤 음악과 미국 문화 전반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한다. 로큰롤이라는 특별한 음악 장르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신, 미국의 음악, 그 심장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미국 대륙 전체의 문화적 움직임을 쫓은 책으로, 최신 개정판에서는 저자가 고쳐 쓰고 덧붙인 각주와 각 음악가들이 발표한 음반 목록을 정리한 정보들이 추가됐다.

저자는 먼저 블루스 연주자인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과 한 때 약장수와 함께 다니며 악을 선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벌인 쇼에 연주자로 등장했던 일명 ‘하모니카 프랭크’, 프랭크 플로이드(Frank Floyd)를 ‘조상들’이라는 소제목으로 묶어서 설명한다. 로큰롤이라는 말에 아직 문화적인 의미가 전혀 담기지 않은 시절에 활동했던 이 두 명의 음악가는 로큰롤 장르의 핵심전통을 앞서 보여준 표본이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당시 음악계의 선봉에 섰던 두 사람의 활동을 짚어보면 음악이 한 나라 전체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한 즐거움과 자긍심을 가득 담아 노래했던 하모니카 프랭크는 로큰롤 음악의 정신을 포착한 인물인 반면, 로버트 존슨은 기존의 미국 예술가들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미국의 어두운 구석, 걸으로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느낀 공포와 두려움을 음울한 선율로 표현했다. 저자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후 등장한 음악가들의 발판이 되었는지, 다른 아티스트들이 형성한 이미지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슬라이 스톤(Sly Stone), 더 밴드(The Band), 랜디 뉴먼(Randy Newman),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는 ‘후계자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된다. 저자가 선정한 이 네 명(팀)의 음악가들은 음악적으로나 대중적으로 각각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고 누구보다 뛰어난 음악적 열정으로 실패마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비평가들로부터 악평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 각자가 추구한 목표를 정의로운 방식으로 실현해 나갔다는 중요한 공통점도 있다. 저자는 이들의 음악과 음악가로서 성장해 간 과정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비전과 점차 바뀌어간 미국의 ‘버전’, 즉 가능성과 한계, 개방성과 닫으로 상징되는 이미지가 집약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로큰롤 음악에 관한 분석은 물론 미국의 예술, 문학, 정치, 도덕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여섯 명의 음악가들이 각자의 음악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버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묘사했는지, 그리고 삶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고민에 이 음악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한 책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평단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Amazon Best Sellers Rank: #21,624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15 in Books > Arts & Photography > Music > Reference

#21 in Books > Arts & Photography > Music > History & Criticism

#46 in Books > Humor & Entertainment > Sheet Music & Scores > Forms & Genres > Popular

<목차>

각주

2015년 개정판 서론

2008년 개정판 서론

머리말

조상들

- 하모니카 프랭크, 1951
- 로버트 존슨,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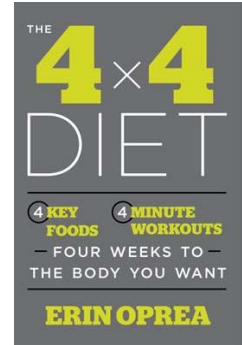
후계자들

- 더 밴드: 천로역정
- 슬라이 스톤: 스태거 리(Stagger Lee)의 신화
- 랜디 뉴먼: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
- 엘비스: 프레슬리아드(Presliad)

<저자 소개>

그레일 마커스(Greil Marcus)는 <롤링스톤스>의 창간 초기 직원 중 한 사람으로, 현재 뉴욕 뉴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4 X 4 Diet
가제 : 4 X 4 다이어트
저자 : Erin Oprea
출판사: Harmony
발행일: 2016년 2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건강



네 가지 음식을 피하고 4분 간의 운동하며 4주간 동안 원하는 몸매를 만드는 신기한 다이어트

미국의 인기 TV쇼 <아메리칸 아이돌>의 시즌 4 우승자이자 그레미 상을 여섯 번이나 수상한 컨트리 음악 가수, 캐리 언더우드도 출산 후에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 인물로 연예 신문의 머리 기사를 장식했다. 그녀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함께 운동하면서 탄탄하면서도 날씬한 체형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아 왔다고 소개한 트레이너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이다. 캐리를 비롯해 싱어송라이터인 제니퍼 네틀스와 리 앤 워맥 등 여러 유명인사들과 함께 일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혁신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네 가지 식품, 4분간의 운동, 4주간의 노력으로 원하는 몸매를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비법이 담겨 있다.

저자가 개발한 독특한 건강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깨끗하게 날씬하게’이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체내 환경이다. 저자는 다이어트를 망치는 4대 성분인 설탕, 전분, 나트륨, 알코올을 줄여서 몸 속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몸매를 ‘날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강도 높은 동작을 20초간 유지하고 10초 쉬었다가 8회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단 4분만에 해치울 수 있는 간편한 운동법이 제시된다. 저자는 이 프로그램을 4주간 꾸준히 실천하면, 수시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사람들과 툭 튀어나온 배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팔과 다리, 복부에 근육이 증가하고, 심폐 지구력 즉 호흡계와 순환계가 지속적인 운동을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오랜 세월 악영향을 발휘해온 설탕 중독과 나트륨 중독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다.

저자는 열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개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했다. 스무 살에는 미국 해군에 입대하여 총 9년 동안 복무했고, 이 기간 동안 이라크 전쟁에 두 차례 참전한 놀라운 이력을 자랑한다. 당시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전투 지대에서 보병대 소속 소대장으로 지명되면서 남다른 능력을 인정 받았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동안, 저자는 자연스레 신체 건강과 올바른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렇게 평생을 건강한 삶과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온 저자는 제대 후 개인 트레이너로 변신하여 유수의 기업 대표들과 연예계 인물들을 비롯해 다양한 고객들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다.

그 동안 저자가 관리해 온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체중 감량과 그저 마르기만 한 몸매가 아닌 탄탄한 체형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세한 운동 방법과 식단과 요리법까지 나와 있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몸매는 물론 생활방식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1부: 깨끗하고 날씬한 라이프스타일

- 1장. 깨끗하고 날씬하게 사는 방법
- 2장. 깨끗하고 날씬하게?
- 3장. 변명을 이겨내는 법

2부. 깨끗한 식생활

- 4장. 깨끗한 식생활을 위한 네 가지 식습관
- 5장. 가장 유익한 식재료와 조리도구
- 6장. 준비 단계
- 7장.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식단과 레시피
- 8장. 레시피 변형법, 대체법

3부. 날씬한 생활

- 9장. 4분 운동법
- 10장. 꼭 필요한 운동 도구
- 11장. 운동 전후 꼭 지켜야 할 것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에린 오프레아(Erin Oprea)는 해군 출신 개인 트레이너로 2007년부터 캐리 언더우드의 트레이너로 일하며 ‘스타들의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People.com>, <Parade> 등에 칼럼을 쓰고 있으며 <우먼스 헬스>, <Vogue.com> 등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